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10, No.2, 183-193, 2004.

주요용어 : 남학생, 간호학 전공경험

남학생의 간호학 전공경험

김 미 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간호직에 대해서는 여자, 섬세함, 부드러움을 떠올리며 금남의 성역인 여성직이라고 생각되어왔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남자들이 선택하면서 2002년부터는 매년 100여명 이상 배출돼 종전 간호사에 대한 여성 일방적인 이미지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간호교육 실태조사(2001)'에 따르면 재학중인 남자 간호학생은 628명으로 1995년의 63명과 비교해 볼 때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혼여성만 입학이 가능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도 2005년부터는 남자 생도를 선발키로 함에 따라 남자 간호학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1년 자료에 따르면 4년제 간호대학 재학생중인 남학생은 1.1%, 3년제 전문대에서는 1.9%를 차지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04). 미국의 경우도 4년제 간호대학 재학생중 남학생은 8.3%이며 2년제 전문대에서는 16.1%를 차지하고 있다(미국간호협회, 2003).

최근 이렇게 남자 간호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자본주의적 사고와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려하게 되는 배경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취업이 쉽고 높은 보수가 보장되어 간호직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화에 따른 파워를 추구하려는 이유에서 간호학을 지원하는 남학생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Boughn, 2001).

한편 간호현장에서도 남자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Evans(1997)는 남자의 경우 간호직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전문화된 간호영역과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정신과나 마취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남성적인 특성이 장점이 되는 간호영역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야간방문이나 재소자 대상 시설에서도 남자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남자간호사로부터 물리적인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남자 환자나 보호자의 경우 남자 간호사에게 말하는 것이 편하다는 측면도 간호의 영역에서 남자를 동반자로 여겨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다(대한간호협회, 2003). 또한 남녀 성차별과 관련된 건강관리요원간 관계의 불합리성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간호전문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손행미, 고문희, 김춘미, 문진하와 이명선, 2003). 그러므로 간호학에 입문하는 남자 간호학생이 잘 적응하여 간호사로 잘 준비되어 배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학생의 간호대학 진학은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의 노출임에 틀림없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적응을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

* 기독간호대학

과정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이 진학하고 있는 각 간호대학은 남자 간호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기본적 자료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남학생이 간호학 학습과 실습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적응과정에서 이들이 겪어내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탐색한 연구도 미흡하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남자가 간호직을 선택한 동기나, 남자간호사의 간호직내에서의 특권과 이득, 실무적응 경험(Williams, 1995; 손행미 등, 2003)에 대해서만 보고된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의 체험을 파악하며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후 간호대학이 남자 간호학생의 적응과 사회화를 도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학생의 적응경험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의미의 본질을 추구하고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시 소재 기독교 배경의 일 간호대학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확대해석함에 있어 신중함을 요한다.

Ⅱ. 문헌 고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남자들도 간호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6년의 일이다. 1972년 3년제 간호교육기관중 서울위생병원 간호학교가, 1974년에는 4년제로서 삼육대학교가 처음으로 남자간호학생을 모집한 이래 68년이 지난 2004년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2002년) 전체 졸업생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85%(4년제 0.34%, 3년제 0.98%)이었다. 이는 10년전 0.08%에 비해 급상승한 것이다. 또 이는 가장 졸업생이 많았던 2001년(0.41%)보다도 2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74개의 간호교육기관이 남녀 구분없이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2004년 2월 졸업자가 101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거의 대부분 간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남자간호사가 최소 100명 이상 탄생한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남자간호사란 뜻인 머스(Murse; Man + Nurs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03). 2004년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남자간호사는 869명으로 전체간호사수(203,310명)의 0.43%에 해당하는 수치다(보건복지부, 2004). 미국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어 2000년 자료에 따르면 약 270만명의 간호사중 5.4%가 남성이며 20년전의 2.7%에 비해 꼭 2배로 늘어난 비율이다(미국간호협회, 2000). Cyr(1992)의 연구에서 초기에는 남자 간호직을 평생 종사할 전문직이 아닌 다른 분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처럼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간호직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화에 따른 파워를 추구하려는 전통적인 남성관에 기인한 것이다(MacDougall, 1997). 또한 남자 간호사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분야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간호사 숫자상으로 이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추이로 볼 때 앞으로 남자 간호학생 수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대한간호협회, 2003).

그런데 낯선 환경으로의 입학은 두 개의 소문화권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 충격이며 문화적인 외로움이 발생된다. 여성이 다수인 간호직의 입문단계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남자 간호학생들이 낯선 세계에 노출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의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예견되는 바이다. 노경식(2003)은 남자 간호학생들이 사회적 희화와 편견으로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군입대 문제와 취업후 병원내 인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도 간호계가 남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인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환경은, 단순한 외계가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외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자 간호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간호교육 시스템이나 여자 간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병원 시스템을 고려할 때 남자 간호학생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남학생들이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속에 비추어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남자 간호

학생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의 사회화와 적응 경험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현상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및 참여자 보호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의 간호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 7명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2학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심층면담을 통해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점까지 총 7명이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을 윤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 본인에게 심층면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심층면접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간략히 설명하였고, 연구결과는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 내용은 절대 비밀 보장된다는 것과 연구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면접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면접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1년 이상 수업과 실습을 통해 rapport가 형성된 관계이며 비 구조적이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남자 간호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병원실습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였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심층면담을 하였다. 초기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로 긴장을 풀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이 진전되면 이야기 흐름에 따라 질문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끌어내려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인당 평균 면담회수는 2회이었고, 평균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다. 초기 면담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부가적인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한 후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언어로 필사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실이나, 번잡한 식사시간대를 피한 음식점 등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서로의 대화가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이었다. 각 심층면접의 시작과 종료는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에 시작하고 종결하였다. 또한 면접의 진행동안에는 피면접자의 반응이나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도성 질문을 삼가기 위하여 연구자의 견해나 가치관을 포함하는 표현과 판단적 태도를 지양하였고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지속하도록 유도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여러 가지 현상학적 접근의 자료분석 방법중에서 대상자와의 심층면담 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술하려는 Colaizzi (1978)의 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적용하여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1단계

참여자들의 기술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반복해서 읽었다.

2) 2단계

남학생의 간호학 전공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나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내었다.

3) 3단계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형성된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형성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의 다양한 문장과 줄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묘사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형성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원자료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되도록 대상자가 표현한 진술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4) 4단계

형성된 의미를 조직하는 단계로 모든 참여자들의 프로토콜에서 공통된 주제를 뽑아내었다. 원자료와의 일

치 또는 모순여부를 주의깊게 살피며 확인하고 주제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원자료로 돌아가서 살펴보았으며, 원자료에 나온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

5) 5단계

모든 주제, 주제 모음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위하여 주제를 관심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완전하게 서술하였다.

6) 6단계

가능한 한 기본적인 구조에서 명확한 문장을 규명하여 조사한 현상에 대한 기술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7) 7단계

다시 각각의 주제로 돌아가서 주요 정보제공자인 참여자에게 좀더 심화된 질문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새로운 자료들을 최종연구에 통합하였다. 참여자에게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기본 구조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함에 있어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네가지 논점 즉 사실적 가치, 적용성, 중립성, 일관성에 근거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 남학생의 간호학 전공경험에 대해 5개의 주제에 따른 15개의 의미들이 조직되었다.

1. 주제 1 : 망설임

1) 싫지는 않지만 고정관념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다.
2) 취업과 전망을 기대하며 해보기로 마음을 먹다.
3)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어색하게 여기다.

2. 주제 2 : 도전과 살아남기

1) 여학생 집단 속의 소수 남자 간호학생으로서 고충을 겪다.
2) 남자가 흔히 접해 보지 못하던 간호활동에 어려움을 겪다.
3) 특히 젊은 이성인 대상자의 간호활동에서 자타의 제한을 받다.
4) 간호학의 중압감을 안간힘으로 버티다.

3. 주제 3 : 안도함

1) 의외로 호의적인 반응에 불안이 해소되어 가다.
2) 여러 주변인의 지지로 힘을 얻다.
3) 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이 들다.

4. 주제 4 : 내면화와 수용

1) 간호학도로서 자신의 모습과 자리를 찾아가다.
2) 어느덧 자타가 예비간호사구나라고 느끼게 되다.

5. 주제 5 : 비전과 우려

1) 여러 관계들 속에서 미미하지만 필요한 존재로서 인식하다.
2) 증가 추세에 따른 반가움과 희소성 감소의 양가감정을 느끼다.
3) 병역의무를 취업과 학업에서 또 다른 변수로 인식하다.

망설임

참여자들은 간호학이 싫지는 않지만 남자가 할 일로서 자신이 없고, 외적인 평가 즉 전통적인 성역할과 직업관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모르겠어요. 적성에 맞는다 그렇게 까지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게 싫지 않고 하는 정도 그정도 였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고 거부감이 있었죠. 그런이 안 그려져요. 남자간호사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여자만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러나 경제적 불황과 실업이 늘게 되면서 간호사는 취업이 용이하고 안정적이며 특히 남자의 경우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랜 숙고끝에 망설이면서도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진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친척누나가 남자간호사에 대해 얘기를 했었어요. 인문대나 사회대 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과 같이 힘든 때에도 취업도 잘

되고 마음만 먹으면 잘 할 수 있다고..." "미래의 경쟁력을 생각해서 전문직이고 취업이 잘되니까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수술실처럼 장기간 서있어야 하는 곳이나 남자 비뇨기처럼 특수한 부서에서 남자니까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진학한 후에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간호학을 전공한다는 것을 남에게 떳떳하게 말하기가 편치 않고 남자답지 않은 학과를 전공한다며 이해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본인도 창피하기도 하여 감추고 싶어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간호학도임을 노출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의 벽을 의식하게 된다. 초기의 강한 망설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만 학년이 올라가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으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는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

"남자들이 그런쪽 가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전공책도 사물함에 넣어두기도 하고. 차타고 다닐때도 보이지 않게 가방에 넣어서 다녔죠. 1학년초에는 보건대쪽 다닌다고 했는데 1학년 말쯤부터 간호대학 다닌다고 말했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하시는 분들만 잘 선택했다고 하시고 친구들은 남자가 간호라가 뭐냐고, 왜 갔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요." "남들에게 밴지 말하고 싶지 않드라고요. 아버지도 요즘에야 아들이 간호라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졸업을 앞둔 지금도 처음보는 사람이 어느학과를 다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전과 살아남기

참여자들은 남자만의 학창생활에 익숙해 있거나 혹은 남녀공학을 경험했더라도 대부분이 여자인 학과 속의 낯선 생활이 시작되면서 여자 간호학생들과 관계 형성이 힘들고 당혹스럽다. 여자 간호학생 다수의 학교생활도 소수인 남학생을 미처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

"처음에 딱 느낀건데 여자 애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뒤끝이 많고. 한번 갈라서면, 남자들은 그 다음날 풀어지는데. 여자들은 그거 가지고 무슨 얘기 저 얘기로 틀어지고 편 가르기 식이 많아요." "무슨일을 할때도 남자들은 하자 하면 하는데, 여자들은 뒤에 무슨 말이 많아요. 물어보는 것도 많고..." "남들은 여학생이 많아서 좋겠다고 부러워 하는데 한 학기 지나니까 관계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당혹스러운 광경도 있고요." "학교에서 친숙 익은 남학생들 독차지예요. 물론 도움 받은도 있죠. 그런데 고마워하지는 않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때는 찾으면서 남학생 전용 휴게실은 특혜다 차별이다 하면서 볼멘이더라구요." "숙제도 어려운 것은 오빠니까 나이많으니까 남자니까 하라고 배당하기도 하고."

"축제때 남학생들은 체육대회처럼 몸으로 부대끼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학생 중심으로 합창, 노래, 공연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동아리 들어갈 때 다른 남학생은 없고 해서 대외활동할때만 주로 했죠." "실습초기에 다 여자 밖에 없어서 좀 그랬죠." " 수술방에서 학생연습용 장갑이 6만이드라고요. 저는 못했어요." "남학생 탈의실이 없었잖아요? 기본간호학 실습할때도 여자 애들이 쫓아내서 어디서 갈아입을까 했는데, 병원에서도 눈치보면서 간호조무사 탈의실 쓸때는 좀 불편했어요."

또한 남자인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온 일부 간호학 과목은 낯설고, 아기돌보기나 임산모 간호와 같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하던 역할을 실습할 때는 자연스럽지 않고 이질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처음에 해부생리시간에 여자 해부 그런 보고 모성시간에 들어와서 제 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랑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했죠. 성인, 정신, 지역 그런거는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모성... 아동은 저하고 맨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기본간호학 실습할 때 어색하다는 느낌이었고 처음에 잘 못했고. 처음보는거 하는 거예요. 생소하고 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죠."

"신생아들기 할때 제가 서툴러서 좀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고, 신생아실 할때 feeding해서 하는데 여자애들은 잘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실습 몇 번 해본 것 같이 가서 얘 안아주고 그러는데 저는 보듬을러니까 애가 불안해 가지고 누여서 먹이다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적응이 안되가지고 2,3일 정도 고생좀 했습니다." "나중에 마누라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배두는 거지 내가 그쪽에서 근무할 거라는 생각으로는 안해요."

"산부인과 병동실습할 때 폭력 카테터 하는거 보지도 못하고 맨날 바이탈만 재고 했거든요. perineal care 한번도 못봤거든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닦는다고 했지 그런가보다 그랬죠."

실습시에는 여성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젊은 이성과 불편함을 겪는다. 자신도 어색

하지만 대상자의 몸도 긴장되는 것을 느낀다. 특히 여성 대상자가 여자에게도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과 신체를 노출하는 간호활동에서는 남자인 자신을 거부하기도 하고, 본인도 조심스럽고 위축이 된다.

"산부인과 병동실습할 때 폴리 소변량 체크할 때 이런거는 남자가 안했으면 좋겠어 그러시드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학생들에게 하라고 해드릴께요 그랬어요." "본망실에서는 skin prep. 했는데 대상자가 말로 안하셔도 고개를 돌린다든지. 저도 그렇고 서로 부끄럽고 불편한 구석이 있었죠."

"근육주사 할때 아주 젊은 분은 차마 못하겠고, 여자 애들한테 하라고 하고. 그냥 나이드신분 30대 이후에는 제가 그냥하고 말씀드리고 하고 그러면 되요. 주사도 젊은 분들은 솔직히 잘 안하려고 하세요. 나이먹은 분들만 한번 해보라고. 저도 좀 젊은 여자분들은 껄끄러워요. 친할머니처럼 나이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폴리하는 것도 그냥 할머니나 남자들 할 때는 보러 가고 했어요."

그리고 타과보다 이수학점이 많은 간호학 학습량과 빽빽한 일정의 수업과 실습으로 늘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며 중압감을 느끼면서 학업위주의 생활을 보내게 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버텨 나가게 된다.

"전공과목 들어가는 학기때가 가장 긴장하게 되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겹다 생각도 들죠.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버릴까도 생각한 적 있어요. 노는 시간도 없고 노는 문화도 없어요. 공부하는거 솔직히 머리 아파요. 복잡하고, 어렵고, 레포트도 많고 배울 내용도 많고 딸려 있는 지식이 계속 딸려 있고..."

"너무 단기간에 많은 페이지를 진도를 나가고, 실습할때도 밖에 붙나는 것 같고. 학교 스케줄이 힘들죠. 시험 볼때 스트레스 엄청해요. 이거 언제 다 볼까... 시험 대충보면 큰일나죠. 고등학교때 이렇게 했으면..."

"학교생활은 바쁘죠. 레포트 하랴 실습하랴 실습 끝나면 또 레포트 하고... 친구들은 거의 안 만나고 길게도 못만나죠. Day 실습나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일찍 자고 실습 뭐 할거 없어도 갖다오면 피곤하고 자고 주말에도 숙제하고 그럴때가 많아요. 개인 생활이 없어요. 정신없어요."

"여자들은 공부에 악착같이 매달려요. 장난이 아니예요. 여자 애들한테 지면 그렇죠. 공부양도 많고 저도 열심히 해야죠." "도전이 되요. 나이먹은 오빠로서 중심은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안도함

참여자들은 실습을 나가면서 막연한 불안과 남자 간호학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지 않을까,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지만 이는 의외의 호의적 반응을 얻으면서 차차 희석되어간다.

"병원 실습 나가게 되면 되게 창피하겠다 생각했죠. 옷도 특이하게 입고 남자가 나왔다고 뭐대?하고 볼건데 큰일났다 그랬는데 좋게 봐주셔서 한시름 놨어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환자들이 나한테 어떨까 그랬는데 막상 다가서면 괜찮았어요. 또 남자대상자들은 남학생이 간호하면 더 멋쩍스러워 하신 것도 같구요."

"보호자들이 신기해 하면서 먼저 말을 붙이기도 해요. 남자간호학생도 있냐고, 남자간호사도 있으면 좋지. 그러세요."

그리고 대다수인 여자 간호사 선배들의 이성에 대한 보다 너그러운 배려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남자간호사 선배들의 지지 또한 교수님들과 일부 의사의 격려로 심리적으로 안도하게 된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남학생이니까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해도 좀 더 너그러운 것 같고... 남자라 튀니까 뭐 시켜도 한 번 더 시키고 그런 거 있어요."

"주변에 부모님이랑, 친척누나, 선배형도 많이 조언해 주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간호사님들이 좋은 말 많이 해 주시죠. 남자라고 주눅들지 말고 잘 배워서 좋은 병원에 취업해 가라고요." "인턴선생님이 잘 선택했다고 그러면서 신경써주고 격려해 줬어요."

또한 자신이 제공한 간호가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에 흡족함과 보람을 느끼며, 남자도 할수 있고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점차 가지기 시작한다.

"남자라서 무거운 환자도 들어주고, 남자환자에게 여자가 하기 쑥스러운 간호도 그렇고. 그런 것도 했죠."

"환자들을 만나면서 재밌었죠.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환자 교육시킬때 환자가 알고 이해하고 더 좋아지고 그럴때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고 해요."

"이론보다 실습성적이 더 좋아요. 징그러운 것 못보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낯을 가려도 익숙하면 사람관계도 괜찮고... 근육주사도 배운대로 놓으니까 남자여서 그런지 터프하네 그래도 잘 놓네라고 하든대요?"

내면화와 수용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학도로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다. 실습도 어느덧 어색하지 않고 의학용어도 익숙하여지며, 가운을 입은 자신을 의료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간호학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간호학,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이면서 특히 사명감이 필요한 간호직, 그 일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다.

"기본간호학 실습시간에는 어색하다는 느낌이었고 긴장긴장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뭐라고 할까. 그때는 간호사다 간호실습이다 그런 생각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임상실습해 가면서 내가 진짜 간호사가 되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의학용어도 잘 알게 됐고, 가운 입을때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의료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간호직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못 가졌고, 동계 오리엔테이션 실습할 때 간호사가 되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죠. 일 자체가 희생, 봉사 정신이 없으면 안되고 생명을 다루는 신중한 학문이잖아요? 환자를 돕고 케어 해주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지드라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자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성격을 활달하게 바꾸려 노력하고 여러 봉사활동, 남자조무사 일 아르바이트 등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간다. 어느덧 자신의 행동이 신중하고 부지런해지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게 되고, 말이나 행동이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주변으로부터도 예비 간호사답다는 말을 듣게 된다.

"전전 좋아지는 것 같고 편해 졌죠." "○○자매원 정신지체 장애자들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드럭때 제가 간호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어요. 방학때는 방학 라데사시 의료봉사활동도 갔었어요." "남자조무사 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자환자 쉐이빙이나 에네마 했죠. 나중에 간호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사에 신중해지고 봉사정신이라든지 희생정신 많이 생각하게 됐죠. 제가 좀 느지부지 하는 편인데 다듬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해 졌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사도 놓고... 한번 더 신경써서 하고... 간호사는 깔끔해야 될 것 같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활발하려고 노력했지요. 한 말이라도 더하려고 하고..."

"친구에게 의학용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때는 이렇게 해서 말하면 간호학을 공부하기는 하나보다고 말하죠. 부모님에게 혈압같은거 재드리면 제법 간호사 태가 난다고, 간호사 된 것 같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세요."

비전과 우려

남자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의 미래를 꿈꿀 때 처음에는 환자들이 의사로 착각하기도 하였고, 같은 남자로서 남성적 직업을 가진 의사에 비해서 그리고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계 속의 소수로서 미미한 존재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후에 성공적으로 간호사가 되어 근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자 조무사와는 다른 전문적 역할을 갖고 있다는 생각과 여자 간호사에 비해서는 대범함이 있으며 힘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의욕을 다진다.

"학생인줄은 모르고 어떤 분은 의사냐고 물어보고 그랬죠. 남자 간호사도 있냐고.." "의사는 자기들 그것만 하잖아요? 간호사는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알아야 하고 해야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남자 볼일할 때 인턴이 하든데 남자간호사가 있으면 그런 것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여자들은 이론은 잘 알면서도 실제로 하라고 하면 좀 꺼리잖아요. 시키면 쑥스러워하고... 남학생들은 안 그러죠. 원래 러갑하고 대담하잖아요? 처음에 동계 오리엔테이션 실습때도 주사도 내가 할께요 해서 했어요." "남자 간호사가 많아지면 의사와 간호사 관계도 좀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요?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한몫 보탤수 있고요."

"조무사 일은 간호사랑 다르죠. 남자간호사는 힘쓰는 일 뿐에도 간호사로서 역할을 해야죠. 유방관리는 여자가, 남자 비뇨기는 남자가 간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취라나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데서 일하고 싶어요. 응급실은 촉박한 상황이 남자들한테 맞고 중환자실도 남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환자 체위변경할때도 그렇고, 힘하고 관련이 되죠. 시트를 갈아준다든지, 환의를 갈아준다든지, 에네마도 그렇고. 여자 간호사 선생님들도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못하는 걸 해야죠. 그래야 남자가 필요하죠. 나중에 저도 설 자리가 더 있게 되죠." "나중에 사회생활도 하고 가장으로서 여가도 보내고 하려면 3교대가 아닌 곳이 좋겠죠."

"남학생으로서 실습하는데는 어려움이 덕했죠. 그런데 이후에 직접 현장에서 남자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면 여자 간호사 분들이 학생때처럼 인정해 줄지는 걱정입니다."

남자 간호학생과 남자 간호사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고민을 상의하고 격려하며 같이 갈 수 있는 동지를 얻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취업 시 희소성에서 오는 특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하고 있다.

"남학생들끼리 따로 만나요. 얘기도 자주 하고요. 편하게 술한잔도 할 수 있는거고, 놀러가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죠. 나중에 졸업후에도 전문직이니까 만나도 좋겠고. 남자 동창회 만들자 그런 계획도 세우고... 현역과 예비역은 나이차가 좀 나잖아요? 현역은 생각도 어리고 예비역들이 이끌어주는 것도 있고... 남자 후배들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고 싶죠"

"성적이 조금 안 좋아서 취직 걱정 좀 되요. 요즘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학생이 많아졌다고... 이제는 여자 애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해요." "병원에 취업 지원해서 안될 때 당황 했어요. 많은 남학생들이 간호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쟁속에서 과연 선택될 수 있을지 불안하고 두렵죠."

그리고 병역을 필한 동기나 선배들은 어딘지 모르게 다르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도 병역의무를 다할 필요는 있는데, 언제 입대할 것인지, 의무병이 아닌 일반병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되거나 졸업 후에 군대를 가게 되면 간호학 내용을 모두 잊어버리지는 않을지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이 취업 후 입대할 경우 휴직이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취직이 안될까 걱정을 하게 된다.

"제대하고 오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비역들은 공부 많이 하죠. 책이 들었다고 할까...취업을 해야 되니까 안하고 싶어도 하게 되죠. "

"군대 가야 하잖아요? 군대가는 것도 현역은 큰 고민이예요. 언제 가냐가 걱정이죠. 실습이 크니까 중간에 가기보다는 1학년때가 좋다고도 하고... 의무병으로 가게 되면 더 나은거고, 취직할 때 졸업후에 가면 군대 갔다 왔서 기억이 날까 싶고, 졸업자가 아니라 졸업예정자를 뽑잖아요. 군대가면서 휴직해주는 병원도 거의 없고..."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남학생의 간호학 전공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최종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내면적 욕구와 외적 시선간의 갈등속에서 취업과 전망을 기대하며 간호학을 선택하지만 이를 숨기고 싶어한다. 그리고 막상 여학생 집단속의 소수 남자 간호학생으로서의 고충을 겪게 되고, 간호학 학습과 실습과정에서도 알아가는 즐거움 외에 전통적으로 남성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접하거나 해야 함에서 오는 당혹감과 이질감을 느끼며, 특히 젊은 이성과의 간호활동에서 자타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학습량과 실습면에서도 중압감을 느끼지만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어 나간다.

한편 임상실습에서 대상자들의 의외의 호의적 반응과 여자 선배 간호사들의 배려와 교수, 의사 등 여러 주변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선배 남자 간호사들의 자리매김을 보면서 안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학과 간호직에 점차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부심을 갖으면서 어느덧 자신과 타인의 눈에 간호학도로서 그리고 예비간호사로서 비추어지게 된다.

미래를 꿈꿀 때 남자간호사를 남자 의사, 여자 간호사, 그리고 남자 조무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미미하면서도 필요한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고 성공에 대한 의욕을 다진다. 또한 수적 증가 추세에 따라 혼자가 아니라는 반가움과 희소성의 감소에서 오는 특혜가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갖는다. 그리고 군대를 미필한 남자 간호학생에 있어 병역의 의무는 학습 스케쥴과 입대 시기, 취업상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5가지 범주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진로선택에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으로 여기는 간호사가 되기에는 자신도, 외부의 시선도 불편하였지만 취업이 용이하고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지만 당당하지가 않다. 또한 여학생 집단속의 소수 남자 간호학생으로서의 고충을 경험하고, 학습과정에서도 과도한 학습량과 전통적 성역할에 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중압감과 당혹감을 느낀다. 여성이 우세한 간호집단에서 남성의 수적 열세가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수인 그들에게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Evans, 1997). 그러나 숨겨진 이득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자 간호학생들의 경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의 시선과 낯설고 배려가 미흡한 교육시스템 속에서 초기에 적응의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으며 그들만의 고민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조계화와 조영숙(2001)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이 기본간호학 실습과 성인간호학 총론을 공부하게 되면서 설레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설레임보다는 긴장감이 있었고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비롯된 생소함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강하였다. 그리고 여학생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특히 젊은 이성과의 간호활동에서 거부를 당하기도 하면서 스스로도 부자연스럽게 느낀다고 하였다. 남자 간호학생이 느끼는 간호학의 중압감은 조계화와 조영숙(2001)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전공교육에 입문하게 되면서 학습량과다, 암기의 어려움, 간호지식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학습이 힘들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연구한 박정원과 하나선(2003)의 연구결과에서 과제물에 대한 부담, 실습위주의 생활로 친구관계의 단절과 피로 등 지금까지와 다른 생활방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며 남학생의 경우 체면을 유지할 정도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또한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여러 우려를 가지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느끼는 생소함과 긴장감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과 환경제공이 입학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향자와 강혜원(2000), 김영숙, 김명순 및 조원순(200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덜 느끼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수행과 학업성취가 높았다. 그러므로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적응의 어려움들을 잘 인지하여 대상자들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 줄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논리보다는 상담창구의 개설과 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역할변화를 통해 간호사로 되어 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태도 변화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학습과 실습의 환경과 시스템 또한 개선 혹은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원할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촉진하고 여학생 동료와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수많은 갈등과정에서 남자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의외의 호의적 반응에 안도감을 갖게되고 주변의 지지를 받으면서 남자 간호학생으로서 자신감을 서서히 갖게된다. 간호학에 대한 경외감과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내면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게 된다. 고성희와 김기미(1994), 박미영과 김순이(2000)는 간호학생들이 첫 임상실습시에 처음 만남과 낯선 병원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어찌할바를 모르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하였고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증진, 학습증진, 간호에 대한 만족감 및 정체성 확인을 경험함으로써 성취감을 획득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발견과 한 사람의 간호인으로 태어나기 위한 도전과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식확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조계화와 조영숙(2001)은 간호학생들이 간호를 전공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학생에서도 유사하였다. 다만 첫 임상실습시에 남자 간호학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불안이 있었고 내면화를 서서히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이 속히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면화되어 미래의 진정한 간호실무자로서 준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자들은 교수를 비롯한 주변의 긍정적 반응과 지지를 통해 힘을 내게 된다. 또한 남자 동기, 선후배간의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해 간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Forisha-Kovach, 1983)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강할수록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고, 김지혜(1998)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사회적 지지도가 청소년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add, Kochenderfer 및 Coleman(1996)은 급우로부터의 지지는 아동의 발달과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학교 친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경우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감과 안전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남자 간호학생이 꿈꾸는 미래는 미미한 존재일수도 있다고 여기면서도 특수 분야나 남성성을 발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생으로서 실습할때와 막상 현장에서 남자 간호사가 되어 일하게 될 때는 다르므로 소수로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위해서 3교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았다. 그들만의 분리된 적절한 자리 혹은 남성성이 유지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것은 남자 간호학생이 수많은 갈등을 극복해 가면서도 여전히 간호사로서 온전히 사회화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한다. 또한 남자 간호학생에게 있어 병역의 의무에 대한 고민이 학습 스케쥴이나 취업고민과 결부되어 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간호과 남학생만이 지니는 특유의 문제점을 재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남자간호학생의 간호학 선택과 학습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교육적, 제도적, 개인적 수준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Water 등(1999)의 주장처럼 간호직의 이미지를 신장시키고 힘을 배양하는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와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성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양성이 균형을 이루어 동등한 전문직업인으로 준비되고 수용되도록 교육적, 제도적, 환경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적 수준에서 배려하고 도와준다면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함께 땀 흘리는 동반자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이 체험한 '간호학도로서의 경험'이 무엇인지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자 간호학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G 광역시 G 간호대학의 남학생 7명을 대상으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전공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망설임', '도전과 살아남기', '안도함', '내면화와 수용', '비전과 우려' 이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학생들은 취업과 전망을 기대하며 선택한 간호학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 고민하고, 소수 남성으로서의 이질감, 학습과정에서 성역할에서의 갈등과 학습의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막상 임상실습을 하면서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여러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남자 선배의 자리매김을 보면서 안도감과 자신감을 갖는다. 점차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면화된다. 여러 의료인과의 상관관계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 의욕을 다진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남자만의 군입대로 인해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을 진학하는 남학생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남자 간호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측면에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예비 남자간호사들의 특성과 능력을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남자 간호학생들의 실습현장 적응을 위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 자체만으로도 대상자들의 눌러져 있던 마음을 풀어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여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확인하였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상을 통해 살펴볼 때, 이들이 시행착오를 덜하고 전공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남자 간호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남자 간호학생들을 위한 상담창구와 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남자 간호학생들을 고려한 학습과 실습 시스템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3) 남자 간호학생만이 지니는 특유의 문제점을 재조명해 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성희, 김기미 (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1.

고향자, 강혜원 (2000). 가치지향, 자기 개념 및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4*, 69-95.

김영숙, 김명순, 조원순 (2002).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51-60.

김지혜 (1998). *청소년 학생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경식 (2003). 창립 12년, 새 집행부 도약다짐. *대한간호, 42*(5), 30-31.

대한간호협회 (2003). 테마기획 남자간호사. *대한간호, 42*(5), 8-29.

박미영, 김순이 (2000).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체험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23-35.

박정원, 하나선 (2003).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2*(1), 27-35.

손행미, 고문희, 김춘미, 문진하, 이명선 (2003). 남자간호사의 실무적응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3*(1), 17-25.

조계화, 조영숙 (2001). 간호학생의 전공교육 입문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2), 360-368.

Boughn, S. (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 Health Care Perspectives, 22*(1), 14-19.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Valle, R. S. & King, M.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atives for Psychology*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yr, J. P. (1992). Male in Nursing. *Nursing management, 23*(7), 54-55.

Evans, J. (1997). Men in Nursing: Issues of gender segregation and hidden advanta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 226-231.

Forisha-Kovach, B. (1983).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Foresman and company, 300-310.

Guba, E., & Lincoln, Y.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Http://www. ana. org

Http://www. koreanurse. or. kr

Http://www. mohw. go. kr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MacDougall, G. (1997). Caring --a masculine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4), 809-813.

Water, K., Postic, M., Durocher, S., Fonker, H., & Brenner, B. (1999). Feedback: Men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2), 523.

Williams, C. L. (1995). Hidden advantage for men in nurs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19*(2), 63-70.

- Abstract -

A Study of Male Students' Experience Majoring in Nursing

*Kim, Mi Hee**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male students' experience as nursing major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of seven mal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The analysis of data were made using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Colaizzi(1978). **Result:** In this study, five essential themes emerged. They are: 「Strong initial -though subsequently declining- hesitation over choice of major」, 「Challenging, ongoing effort to survive in an environment of new and unaccustomed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Recurring sense of reassurance and relief upon occasions of unexpected success」, 「Growing internalization and acceptance of their role as nursing students or as future nurses」, 「Ambivalent feelings resulting from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ir vision concerning their future as nurses and their worry concerning their future as male nurses」 **Conclusion:**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mal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this study will prove helpful not only in understanding male students' experience while majoring in nursing but also in describing their needs for systemic and emotional support.

Key words : Male student, Experience majoring in nursing

* Christian College of Nursing